

# “행정고시 합격해 국가 변화 이끄는 사람 될 것”

## ‘불수능 만점’ 광주서석고 최장우군 인터뷰

만점 비결은 ‘계획→실천→점검’ 공부 루틴이 핵심  
국어, 초·중 독서 경험 중요…수학, 개념 이해 집중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 성적표’를 받은 서석고 3학년 최장우군은 “혹여 마킹 실수가 있을까 불안했는데 성적표를 받고 나니 비로소 실감이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수능은 역대급 난이도로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장우군은 국어(언어와 매체), 수학(미적분), 사회탐구(경제·사회문화)에서 최고 표준점수를 기록했다. 영어·한문까지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받으면 전 과목 만점을 달성했다.

최장우군은 만점 비결로 ‘계획과 점검의 반복’을 꼽았다.

그는 “영상·미리 생각해두기”를 원칙으로 삼았다”며 “계획서에 세운 계획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점검하면서 효율적인 공부 루틴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과목별 전략도 구체적이었다.

“국어는 초·중학교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 텍스트를 빠르게 이해하는 힘이 생겼다”며 “수학은 선행보다 개념의 근본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집중했다. 문제

풀기 기술에 의존하기보다 원리를 이해하는 방식이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사회탐구 중에서는 경제가 가장 까다로웠다고 기억했다.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하는데 계산과 상황 판단이 많았다”며 “2학년 때 경제·사회문화·생활과 윤리를 모두 공부해 빛지만 암기 비중이 높은 생활과 윤리보다 개념·문제풀이 중심의 경제와 사회문화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3년 내내 전 과목 내신 1등급을 유지해온 그도 훌륭히 있었다.

“월 모의고사 성적이 기대보다 낮아 힘들었지만, 이후 다른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나오면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회고했다.

사교육 경험에 대해선 “중학교 때까지 국어·수학 학원을 다녔고,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수학 학원에 다녔다”고 말했다.

여가 시간에는 틈틈이 영화 감상을 했던 게 큰 힘이 됐다.

“매주 한 편씩 OTT로 영화를 보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수능 직전에도 넷플

릭스에서 ‘프랑켄슈타인’을 보면서 긴장을 내려놓았다”고 전했다.

광주학생의회 의장과 전교회장을 맡았던 경험도 큰 자산이었다고 한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고 토론하며 긴장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것이 시험에 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진로에 대해서는 “학생회 활동을 통해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자신을 보며 큰 성취감을 얻었다”며 “행정고시를 준비해 공직에 진출하고, 국가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미래 수험생들에게는 “지금의 성적이나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만점은 캐нь 서울에 있는 대학 진학이 목표였다. 시험을 치르면서 목표가 조금씩 높아졌고, 결국 수능 직전에는 ‘한번 만점을 노려보자’고 결심했다”며 “원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고 말했다.

현재 최장우군은 서울대 경제학부 수시 면접을 마친 상태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광주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온 것은 2016학년도 이후 10년 만이다. 올해 전국 만점자는 서울 3명, 전북 1명, 광주 1명 등 총 5명으로 집계됐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2026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는 5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서석고등학교에서 만점자 재학생 최장우군이 인터뷰하고 있다. 광주에서 수능 만점자가 나온 것은 2016학년도 이후 10년 만이며 올해 전국 만점자는 서울 3명, 전북 1명, 광주 1명 등 총 5명이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서석고, 역대 수능 만점자 4명

### 맞춤형 진학지도 효과…지역 명문고 ‘우뚝’

광주서석고등학교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를 배출했다.

‘불수능’으로 전국에서 만점자가 5명밖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만점을 배출하면서 광주서

석고는 지역 명문고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게 됐다.

최군은 앞서 자체점에서 만점으로 추정됐으며, 이날 성적표 통지를 통해 최종 결과를 확인했다.

최장우군은 지도단 정승균 담임교사는 “학원 등에 의지하기보다는 학교생활에 초점을 맞춰 꾸준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업은 물론 학생회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등 다방

면으로 훌륭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미래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서석고는 2001학년도 이후 4명의 수능 만점자를 배출했다.

지난 2001학년도 박수군을 시작으로 2014학년도 유규재군, 2016학년도 정민건군 등이 선배들의 뒤를 이어 금자탑을 쌓았다.

광주서석고는 학생 활동 중심의 토론 수업과 각 교과 특성을 살린 주제별 팀

구 활동, 창의력 신장을 위한 독서교육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맞춤형 진학지도를 해온 것이 특

특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송천국 교장은 “학교 교육활동을 믿고 잘 따라준 재학생들의 성실함과 도전 정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학생들이 사회에서도 광주서석고의 명성을 빛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피의자 도주·추락사…체포영장 집행 ‘흔들’

### 경찰, 장비 사용·현장 통제 부실…“매뉴얼 점검”

수사당국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를 놓치거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본적인 법 집행 절차가 흔들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 안전 확보와 도주 방지라는 원칙이 동시에

무너진 만큼 체포영장 집행 매뉴얼과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달아났던 40대 사기 혐의 피의자 A씨를 이날 오전 3시30분께 전북 전주시 한 숙박시설 인근에서 붙잡았다.

검찰은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해 도주 경위와 조력자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10분께 서구 치평동 한 호텔 인근에서 경찰 수사관 2명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순간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차에 있는 짐을챙기겠다”고 요청했고, 수사관이 이를 허용한 사이 스스로 차량 시동을 걸고 현장에서 이탈했다.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 지침’에는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최소 범위에서 수갑 등 보호장구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검찰은 A씨에게 어떠한 장비도 사용하지 않았다.

차량을 막아서던 수사관 1명이 부상을 입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인물로, 투자 유도 및 차용금 편취 등 다수의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석 요구에도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다.

피의자가 영장 집행 직전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3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숙박업소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피의자 B씨가 영장 집행 직전 7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객실 문을 잠근 채 내부에서 버티고 있었고, 경찰이 숙박업소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기 직전 창문 밖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객실 창문에는 방법장이나 추락 방지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피의자 도주와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법조계에서는 “기본 절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 우려가 커진 피의자에게 수갑 등 보호

장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차침 미준수 문제”라며 “현장 판단과 지휘 체계 모두에서 하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인물로, 투자 유도 및 차용금 편취 등 다수의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출석 요구에도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다.

피의자가 영장 집행 직전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3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숙박업소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피의자 B씨가 영장 집행 직전 7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객실 문을 잠근 채 내부에서 버티고 있었고, 경찰이 숙박업소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기 직전 창문 밖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객실 창문에는 방법장이나 추락 방지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피의자 도주와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법조계에서는 “기본 절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 우려가 커진 피의자에게 수갑 등 보호

장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차침 미준수 문제”라며 “현장 판단과 지휘 체계 모두에서 하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공동사업자 거부’ 단수·단전한 한의사 벌금형

한의원 건물을 강제로 단전·단수한 50대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용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관리소장인 C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8시 광주

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분쟁 도중 피해자를 강제로 출출 할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가 한의원 운영을 종국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해도, 환자들이 내원하며 정상 운영하는 병원을 폐원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 절차를 고려하면 당시 한의원

이 운영을 중단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

## 오늘의 날씨

해설 07:28  
체험 17:20  
일설 20:54  
일침 10:45



광주	6~9
목포	6~8
여수	6~10
순천	4~9
구례	3~9
광주	6~10
제주	6~10
목포	6~10
여수	6~10

## 허위정보 댓글 게시자 체포

만년필 ○…전남 신안여객선 좌초 사고 피해 승객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

전남 경찰청 시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 17분 전남 신안군 장관면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원해 누비아2호의 좌초 사고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유튜브 댓글로 달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A씨는 사고 관련 유튜브 영상에 ‘부상자들이 보상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허위 댓글을 달았다고 경찰은 작성자인 A씨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

전남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지역비하 등 부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댓글 20여건에 대해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 임영진 기자 looks@

## 경찰, 감금신고 받고 출동 성매매 영업 정황 포착 수사

‘원룸에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성매매 영업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7일 광주 서부경찰에